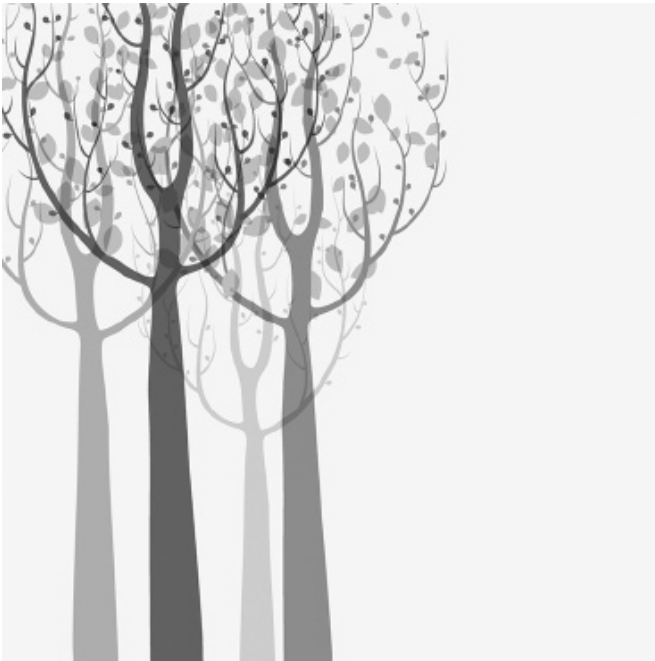


존재는 관계다

| 월인 |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 비교해서 보는 것 때문에 인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연법이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분별이 없다면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 구분할 수 없을 것이고, 이것과 저것을 나눌 수 없다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겠죠? 이렇게 불교의 십이연기설 자체가 분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분별 자체가 실상은 허구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저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물 자체物自體는 건드릴 수 없다

소립자, 양성자와 중성자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뭐가요? 가정입니다. 물리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가정假定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결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전자電子는 이런 것이 아닐까? 원자는 이런 것이 아닐까? 소립자는 이런 것이 아닐까? 그 가정에 맞추어 실험을 해보니 딱 맞아 떨어져요. ‘아, 그러면 이 가정에 오류가 없으니까 이것이라고 하자.’고 정하는 것이 물리학의 역사입니다. 결코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관찰되는 것은 모두 관찰자와 필연적으로 ‘관계맺고 있는’ 특수한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이렇게 가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정에 맞아 떨어진 지식일 뿐입니다. 구르지에프의 수제자라 할 만한 우스펜스키는 ‘우리의 앎이라는 것은 미지未知가 미지未知를 정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깊이 파고들면 사실 우리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학도 물리학도 모두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시작한 그 가정에 사물들의 비율과 배분과 리듬이 맞아떨어졌을 뿐이죠. 실제로 10cm가 있습니까? 10cm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예를 들어 손가락의 이 만큼의 길이를 1cm로 하자고 정한 후에 이 길이의 10배니까 10cm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1cm를 다른 모든 것에 적용해요. 이것을 길이의 기준으로 삼아 ‘1cm’라고 이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1cm는 없어요. 당연히 1mm도 없지요. 그런 가정 하에 모든 수학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수학의 밑바닥은 사실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맞아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간의 ‘관계와 비율’이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A의 길이를 1cm라고 하면 B의 길이는 10cm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C의 길이를 비교해보니까 5cm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B는 10cm고 C는 5cm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B가 C보다 두 배 길다는 뜻이지요. 10cm, 5cm 자체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수학은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지식도 관계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사물의 본성이란 없다’라고 말하고 물리학자인 헨리 스텝은 ‘존재한다는 것은 관계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이제 아주 깊숙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불교 유식학에서는 2,000년 전부터 설해왔는데, 칸트는 서양철학에서 아주 치밀하게 얘기한 것뿐입니다.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유식학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깨어있기™ 식으로 얘기하면 ‘존재한다는 것은 감각기관과 사물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것만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전자현미경이나 어떤 추론에 의해서 소립자를 측정해내죠. 그렇게 법칙을 추론하는 의식 또는 전자현미경과의 관계에 의해 소립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전자파 측정기기가 없었을 때는 전자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 때에도 측정하지 못했을 뿐, 전자파는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그것을 측정하는 도구가 없고 그것에 영향 받는 자가 없다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파 자체도 코끼리의 다리와 같이 어떤 현상의 ‘일부’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전자파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현

상의 일부분의 측면인 것입니다. 마치 전자기파電磁氣波와 같이 말이지요. 전기와 자기는 이제 하나의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흐르는 곳에 늘 자기장이 형성되고, 자기가 있는 곳에 늘 전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전자기장電磁氣場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만들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전기가 따로 있고 자기가 따로 있다고 나누어 보았지요. 그와 같이 사실은 온 우주가 하나의 몸처럼 되어 있는 중에 한 순간의 ‘몸짓’만 따로 떼어내어 ‘주먹’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해서 ‘주먹’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몸짓’일 뿐입니다. 손가락과 손바닥이 어떤 형태로 관계 맺은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존재는 관계’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의식도 존재하기 위해서 나와 대상이라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아는 거죠.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나와 대상의 관계입니다. ‘나’ 따로 생각하고 ‘대상’ 따로 생겨나지 않아요. 나와 대상이 동시에 생겨난다는 것은 우리의 깨어있기™ 감각연습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감각상태에 들어가면 대상이 점차 희미해지고 그에 따라 ‘나’라는 것도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나’라는 것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의식하는 자’마저 사라진 상태를 순수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수의식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또한 하나의 미세한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관계에 태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존재’라는 것은 감각기관과 대상 사이의 ‘관계’인 것이고, 사물에 대한 우리의 느낌인 감지는 그 사물에 대한 마음의 흔적일 뿐, 사

의식은 기본적으로 자꾸 나눕니다. 우리는 파동현상에 대해 '파동'이라고 이름 붙여 봤어요. 또 다른 것에 대해 '입자'라고 이름 붙여놓고 '이 둘은 달라.'라고 구분 짓는 것이 우리 의식이 늘 하는 일입니다. 의식은 끊임없이 나누고 분별해야만 '얹'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진짜로 그런 느낌과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우리는 물物 자체를 알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物 자체가 남겨놓은 마음의 흔적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흔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파동으로 보이고, 입자라고 생각하면 입자처럼 보입니다. 빛 자체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빛이 파동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부분, 빛이 입자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죠. 빛은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닌 새로운 무엇일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가면 또 다른 무엇이라고 할지도 모르죠. 또는 개별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지요. 왜냐하면 관계에 의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기본적으로 자꾸 나눕니다. 우리는 파동현상에 대해 '파동'이라고 이름 붙여 봤어요. 또 다른 것에 대해 '입자'라고 이름 붙여놓고 '이 둘은 달라.'라고 구분 짓는 것이 우리 의식이 늘 하는 일입니다. 의식은 끊임없이 나누고 분별해야만 '얹'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죠.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세상 또는 하나도 아닌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이不二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전 무기물과 유기체가 하나처럼 돌아가죠. 나무 속의 물과 나무가 나누어지지 않고, 인체 내의 물과 인체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물 따로 인체 따로 이름을 붙여봤지만 결코 그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유지시키는 것은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

다. 물이 없으면 인체가 존재하지 못하고, 물을 매개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라지면 그 물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모든 변계소집상이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변계소집상은 마음이 나는 분별일 뿐이에요. 세상에는 식물과 동물이 없는데 우리 마음이 식물과 동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땅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중국과 한국이라고 나누어 이름 붙여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땅이 정말 둘로 나뉜 것입니까? 땅은 나눌 수 없는 한덩어리일 뿐입니다. 변계소집상은 분리된 ‘존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 자체가 뿌리 없는 망념에 의한 차별일 뿐이므로 무상無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마음속에 나누어진 상相들의 분별과 그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곳에 개별적인 존재란 없는 것입니다.

이름이 붙음으로써 일시적인 경계가 영구적인 것이 되고, 생각과 말이 됩니다.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생각과 말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離言說相). 그리고 이름을 떠나죠(離名字相). 그 다음 느낌인 감지를 떠납니다(離心緣相). 깨어있기™ 연습방법으로 봐도 맨 처음 생각을 떼 내고, 그 다음 이름을 떼고, 감지를 떼어 냅니다. 심연상은 ‘마음에 줄로 맨 모양’의 의미로 마음속 내적 느낌들의 관계를 말하며, 따라서 심연상을 떠나있다는 것은 마음속의 미묘한 느낌마저 떠나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심一心이라는 것이죠. 생각을 떠나고 이름을 떠나고 감지를 떠나는 깨어있기의 과정이 이 언설상, 명자상, 심연상을 여의는 과정과 닮아있습니다. 언설-명자-심연의 순서를 보면 이 글을 쓴 마명 역시 그런 단계로 경험했다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생각으

로 추론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과 생각과 이름과 감지를 떠나면 드디어 평등平等, 불변不變, 불괴不壞가 온다고 했습니다. 평등은 만물에 차이가 없다는 말이고, 불변은 변하는 것이 없고, 불괴는 파괴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여입니다.

唯是一心. 故名眞如. 以一切言說, 假名無實, 但隨妄念,
 유시일심 고명진여 이일체언설 가명무실 단수망념
 不可得故.
 불가득고

이 일심으로 인해서 진여라 이름하니 일체의 말과 생각은 거짓된 이름일 뿐 실체는 없다. 단지 망념을 따른 것이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論]

언설과 명자와 심연상을 떠나면 일심一心으로 돌아갑니다. 파도의 모양을 떠나면 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파도 저런 파도는 이름이고, ‘이런 파도가 저런 파도를 만나서 싸워서 이겼다.’ 이런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떠나고 이름을 떠나면 어떤 ‘이름 없는 느낌’만 남는데 그 느낌마저도 구별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상相인 것입니다. 그런 구별되는 느낌의 상相마저 떠나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일심一心 속에 있게 됩니다. 그 일심一心은 평등하면서 변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진여眞如라 하고, 일체의 말과 생각은 임시적인 이름일 뿐 실체가 없고 망심妄心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각하지 못하므로 어쩔 수 없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세상을 나누어 마음속에 부분지어 분별해서 봅니다.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미국과 한국, 또는 일본과 중국 이렇게 나눠 놓고 구별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절대로 나눠 있어 있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전 우주상은 결코 나눠

져 있거나 분별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그것을 지각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선을 긋고 나누어 마음에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실제의 세상은 선 그어지지 않았는데, 마음에 비친 세상에 선을 그어서 세상을 지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할 때, 실제로는 마음의 지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 비교해서 보는 것 때문에 인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연법이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분별이 없다면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 구분할 수 없을 것이고, 이것과 저것을 나눌 수 없다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겠지요? 이렇게 불교의 십이연기설 자체가 분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분별 자체가 실상은 허구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분별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지각하기 때문에 그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인연법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고 말을 한 것뿐입니다. 최소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생겼다’라고 말하지는 않기 위해서, ‘이것은 저것의 원인이 되고 저것은 이것의 원인이 된다. 서로가 서로한테 원인이 된다.’라고 어쩔 수 없이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은 분열되어 있지 않음을, 깨어있기™의 감지感知에서 감각感却으로 가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알게 되죠. 분별되어진 대로 보는 것은 우리 마음일 뿐입니다. 이상이 진여의 체體에서 심진여心眞如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심一心의 이름에 대한 원효의 소疏를 다시 보겠습니다.

謂染淨諸法其性無二，眞妄二門不得有異。故名爲一。
위염정제법기성무이 진망이문부득유이 고명위일

此無二處諸法中實，不同虛空，性自神解。故名爲心。
차무이처제법중실 부동허공 성자신해 고명위심

더럽고 깨끗한 모든 법은 그 본성이 둘이 아니어서, 생멸심과 진여심의 이문二門의 본성이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라고 했고, 둘이 없는 것이 모든 것의 실체이다. 허공과 같지 아니하여 본성이 스스로 영묘하게 이해함으로써 마음(心)이라 이름 붙였다.

然既無有二，何得有一。一無所有，就誰曰心。
연기무유이 하득유일 일무소유 취수왈심

如是道理，離言絕慮。不知何以目之，強號爲一心也。
여시도리 이언절려 부지하이목지 강호위일심야

그러나 이미 둘(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一)도 없는데 무엇을 마음(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여의고 생각을 끊는 것이니 무엇이랴 지목할지 몰라 억지로 이름 붙인 것이 일심一心이라 하였다.

[소疏]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안다고 여겨진다면 ‘나는 꿈속에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황홀한 우주적 체험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일심은 나눴이 없는 세계이고 체험할 수 없는 세계인데, ‘나는 체험했어’ 혹은 ‘나는 깨달았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꿈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꿈보다는 조금 투명한 꿈이겠지만 꿈은 꿈입니다.

일체의 언설은 임시적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여, 생멸, 진여심, 본질, 현상... 이것들은 모두 이해시키기 위한 임시적인 이름일 뿐입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네오의 스승인

모피어스가 매트릭스에 들어가 보니 모두 다 매트릭스 속에서의 상이
 같아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네오와 모피어스라고 이름 붙여놓았지
 만 둘 다 일시적인 이름일 뿐이고 상相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진여라는
 이름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진여라는 이름을 다시 한 번 설명
 합니다.

言眞如者亦無有相, 謂言說之極, 因言遣言.
 언진여자역무유상 위언설지극 인언견언


진여라고 말하는 것은 상相이 없으니 언설의 궁극은 말로 인해서 말을 버
 리는 것이다.

[논論]

만약 진여라는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진여를 알 수 있을까요? 마음
 속에 상相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안다’는 것 자
 체가 마음의 현상이에요. 마음에 상이 있다는 것은, 정靜적인 상이든
 동動적인 상이든, 어떤 느낌과 생각이 있거나 그것들이 서로 관계가 있
 거나 하는 것이죠. 진여는 어떤 상相도 없습니다. 언설의 궁극은 말로
 인해서 말을 버리는 것이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
 과 일맥상통합니다. 말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것
 은 말하지 말라”입니다. 말은 상相을 기반으로 하므로, 우리 마음에 떠
 오를 수 없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여는 본래 상相이
 없기 때문에 진여 자체를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사들이 몽둥이로 때리거나 “할뻘”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
 다. 몽둥이질로 유명한 사람이 덕산 선사이고, 큰 소리로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은 임제입니다. 임제의 할뻘과 덕산의 방棒은 아주 유명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라도 깨뜨려서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진여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진여라는 말 자체는 아무런 실체도 없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相이란 미묘한 ‘느낌’까지도 포함합니다. 감정, 생각, 이름, 그리고 그것들이 일으키는 느낌,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상相입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름이 아닌 미묘한 느낌도 마음속에서 ‘느껴지고 와 닿기’ 때문에 느낌도 일종의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에 보면 “말로 말을 버리는 것은 소리로 소리를 그치게 하는 것과 같다(所謂因言遺言, 猶如以聲止聲也).”라고 했습니다. 소리로 소리를 그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누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면 이를 멈추게 하려고 “조용히 해”라고 말함으로써 개념을 전달시키고 이해시켜서 조용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야!”라고 크게 소리쳐서 깜짝 놀라게 하여 잠시 멈추게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가 선사들이 제자들에게 한 일입니다. 첫 번째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방식은 생각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일어나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인 쓴 방법이 방棒(몽둥이)이나 할囑(고함)이었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는 말에는 생각들이 묻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끄러움’이라는 생각을 연결하게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생각들을 끌어냅니다. ‘조용히’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 이해 가능한 개념이 다른 것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해시키기보다는 우리 머리와 마음의 혼란스러움을 일거에 잠재우는 두 번째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 책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깨어있기 워크숍을 들은 오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승기신론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의식이 펼쳐지는 과정을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분석, 분해한 글인데 제목에 믿음·신앙·자가 불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통해 알아채진 '깨달음'이라는 것마저도 표현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불교의 이 '혁명적인 선언'을 즐겨 읽어주십시오. 그러하기에 '깨달은 개인'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 모두는 우주적 불이·不二의 의식 안에 펼쳐지는 '현상'임을....

저자 | 월인越因 이원규 | 미내사클럽 대표, 격월간 <지금여기> 발행인. '깨어있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찰력게임'을 보급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2016),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2009), 《관성을 넘어가기-감정의 대해부》(2013), 《죽음 속에도 봄이 넘쳐나네》(2008), 《주역-심층의식으로의 대항해》(2009)가 있다.

월인越因은 '인연을 넘어서'라는 뜻이다. 이 세상 만물과 우리 내면은 모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인연법칙의 소산이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다. 그 어느 것도 변함없는 제1원인인 것은 없다. 우스펜스키의 말대로 '미지未知가 미지를 정의하는' 현상일 뿐. 그것은 외부 물질세계와 내부 정신세계를 망라하여 모두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의존하는 '인연'의 '뿌리 없음'을 보면 이제 인연을 넘어서게 된다. 인연의 파도를 넘어서 그곳엔 근원의 물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모양은 이런 저런 파도로 가득하지만 모양을 넘어서 그곳엔 오직 아무런 모양도 없는 '물'만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이 인연의 세계를 넘어서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월인越因이라 이름하였다. 그 인연의 세계를 넘어 있는 곳을 향하여...